

삼위일체 대축일

제 1독서 : 출애 34, 4b-6.8-9

제 2독서 : 2고린 13, 11-13

복 음 : 요한 3, 16-18

숲 정 이

“하느님은 이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보내주시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셨다” (요한 3, 16).

강론

“삼위일체이신 하느님”

정승현 신부 / 성글라라봉쇄수녀원

1. 하느님은 당신을 이렇게 계시하셨습니다. “나는 야훼다. 야훼다. 자비와 은총의 신이다. 좀처럼 화를 내지 아니하고 사랑과 진실이 넘치는 신이다.”

사도 바울로 역시 “사랑과 평화의 하느님”께 대한 믿음을 고백하며, 그 하느님께서 신자들과 함께 계시기를 이렇게 기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루어주시는 친교를 여러분 모두가 누리시기를 빕니다.”

예수께서 계시하시는 하느님 역시 사랑의 하느님이십니다. “하느님은 이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보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셨다.”

우리는 그분이 계시하신 대로, 그분의 아드님이 계시하여 주신 대로, 그분의 복음선포자들을 통하여 계시하시는 대로 그분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교회 안에 보존되어 온 거룩한 전승(聖傳)에 따라 하느님을 믿습니다.

2. 우리의 신앙은 성삼적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성령 안에서 성자를 통해 성부께 나아가는” 신앙을 지니고 있습니다. 성부는 우리의 목적지입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집을 향해 가는 나그네이며, 그 길은 바로 성자 그리스도시요, 성령은 우리의 빠라끌리도 즉 동행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믿는 것은 그저 하느님이 계심을 믿는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하느님의 사랑을, 하느님이 사랑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을 받는 그분의 자녀임을 믿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성자께서 사람이 되어 오심으로써 드러났고, 성부와 성자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므로써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코 지나간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루어지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능력을 받아 예수께서 계시한 대로 하느님을 우리 (친)아버지로 모시는” 사람만이 그리스도교 신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종교의 신자들과 별로 다를 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사를 이렇게 시작하고 행하고 마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소리

“청소년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어느 새 한해의 중턱, 6월에 접어들었다.

6월은 화려함이나 신선함이 없다.

그러나 의연합과 성숙함이 느껴지는 계절이다. 나뭇잎은 푸르르고 초목들은 뿌리에 영양을 저장하고 풍요로운 가을 수확을 약속하는 희망의 계절이기도 하다.

우리 한생애 중 청소년기가 바로 그 시기다.

그런데 최근 가장 많은 영양을 섭취 저장해야 할 중요한 시기에 성적부진과 진로문제로 고민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청소년들이 잇달고 있다니 안타까운 일이다.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유치원도 다니기 전부터 미술학원과 피아노학원을 다니기 시작해 자기 시간을 전혀 가져보지 못한 채 유년기를 보낸다.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훌륭한 대학에 진학해야 한다는 부담감으로 몸과 마음을 옥죄이며 살고 있다.

특히 올해 94학년도부터 실시되는 수학능력시험을 치뤄야 하고 석 달 앞으로 다가온 1차 시험을 앞둔 청소년들의 마음은 무거운 수박에 없는 실정이다.

세정부 출범 이후 각계각층이 옛날과 달라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런 때 청소년들도 성적부진과 진로문제로 고민하지 않고 소질과 특성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6월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스도도를 기억하며 기도해야 할 예수 성심 성월이다.

주여, 우리 청소년들에게 온갖 어려움을 이겨내고 두려움없이 살아갈 지혜와 용기를 주소서. ☐

숲정이 산책



성서교실 29

“야훼께서는 참으로 신의를 지키셨구나” (창세 24, 1-27)

이사악과 리브가의 결혼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생애를 마감하고 있다. 종에게 맹세를 시키고 아브라함은 무대에서 완전히 사라진다. 이후 그의 마지막 여생에 대해서는 편집자에 의해 25장에서 간단히 묘사하고 있을 따름이다. 이사악과 리브가의 결혼 이야기는 야훼스트의 작품인데 후대의 편집자들의 손을 거의 거치지 않고 순수하게 보전된 것으로 보인다. 고대 근동의 결혼 풍습을 생생하게 전해주는 작품이다.

이사악과 리브가의 결혼 이야기는 크게 4부분으로 나뉜다. 첫째 아브라함 앞에서의 종의 맹세, 둘째 표징의 요구, 셋째 표징의 실현, 넷째 리브가와 그의 친권 보호자들의 동의이다. 여기서는 아브라함 앞에서 종이 맹세를 하는 대목과 종이 하느님께 표징을 요구하는 대목을 살펴보겠다.

아브라함은 종에게 자신의 사타구니에 손을 넣고 맹세하도록 한다. 히브리 본문에는 넓적다리로 표현되는데 이는 남자의 생식기를 은유적으로 가리키는 말이다. 생명의 근원인 남자의 생식기에 손을 얹고 맹세함으로써 맹세를 어기는 일이 생기면 맹세를 어기는 자는 저주를 받아 더 이상 출산할 능력이 없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하늘과 땅은 계약의 일반적인 증인으로 등장하게 마련이다. 여기서는 하늘과 땅의 하느님, 곧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보시는 창조주 하느님은 종이 어떻게 계약을 이행하는가 지켜보시리라라는 것이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여자와 자기 아들이 결혼하는 걸 반대하는데, 이는 신명기 7장에 나오는 것처럼 종족의 순수한 혈통을 보존하고 우상숭배의 오염을 막기 위해서였다.

아브라함의 종은 주인의 명령에 복종하여 길을 떠나 아람 나하라임이라는 곳에 도착한다. ‘아람 나하라임은 두 강 사이의 아람’이라는 뜻인데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강 상류의 아라메아 부족들이 살던 상부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가리킨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데라는 세 아들을 두었는데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이었다. 리브가는 나홀의 손녀딸이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만났을 때 리브가의 할아버지 나홀뿐 아니라 그의 아버지 브두엘도 죽었기 때문에 이야기에서 리브가는 생존해 계시는 할머니 밀가의 손녀이자 밀가의 아들 브두엘의 딸로 소개되고 있다. 그리고 리브가에 대한 모든



이사악이 리브가를 아내로 맞다

권리가 그녀의 오빠 라반에게 위임되어 있다.

우물가에 쉬고 있던 아브라함의 종은 하느님께 아브라함에 대한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에 호소하면서 표징을 요구한다. 여기서 표징은 신적 능력의 표시로써 하느님으로부터 어떤 임무를 받은 사람이 그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하느님으로부터 특별한 도움을 받게 될 것이라고 보장해주는 외적인 사건이나 현상을 말한다. 이 표징은 임무를 받은 사람이 요구할 수도 있고, 일방적으로 주어지기도 한다. 이를테면 출애굽 전에는 모세에게 표징이 주어졌고, 미디안족을 칠 때 기드온은 하느님께 표징을 요구했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종이 요구한 표징은 신부될 처녀가 자신과 자기 낙타들에게 흔쾌히 물을 먹여주는 것이었다. 리브가는 종이 요구하는 표징을 실현시켜준다. 이 표징은 하느님의 의향을 가리켜줄 뿐만 아니라 리브가의 관대함도 함께 보여준다. 나아가 리브가는 자신이 아브라함의 친척임을 밝히고 아브라함의 종을 정중하게 초대함으로써 표징을 더욱 확신시켜준다. 이에 아브라함의 종은 아브라함과 맺으신 계약에 성실하신 하느님을 찬미하게 된다. 종은 “야훼께서는 내 주인을 버리지 않으시고 참으로 신의를 지키셨구나.” 하고 탄복한다.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과 하느님 사이의 질은 신뢰와 우정을 언제나 지켜보던 종의 충직함과 리브가의 고운 마음씨를 본받아 우리도 친절과 은유로 하느님과 이웃의 신망을 받는 자녀가 되도록 노력해야겠다.

서범석 한의원

원장 서범석(골베)

팔달로변 덕진 성당 옆

☎ 72-2665
75-3533

청수종합 오토바이상사

대림·효성 전시 판매장
전문 수리점

백종술(빠뜨리시오)
이혜숙(가타리나)

동양APT 사거리 ↔ 구 해성고 사이
☎ 251-3717

커티엔·양재
현대홈패션 학원

- 초보자를 위한 무료 강습 실시
- 퀴미반·부업반·예비신부 우대

한순옥(요안나)

원대병원 앞
☎ 54-6890

소흥영 외과의원

레이저 치질 수술(무통)
통증 컴퓨터 치료실
소흥영(요한)
유인경(유리안나)
시청 앞

☎ 85-3668, 85-8120

5분교리 32

“세례성사(洗禮聖事)”

세례성사의 광범위한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서 짧고도 쉽게 설명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세례 또는 성세란 물로 씻는 거룩한 예식이란 뜻이다. 아침마다 세수한다고 해서 그것을 세례성사라고는 하지 않는다. 더러운 때와 같이 몸에 밴 죄악을 씻어 없애는 예식이니 얼마나 심오한 의미가 담긴 거룩한 행위가겠는가? 세례성사를 받으므로써 우리는 ‘어둠의 자식들’에서 하느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난다.

우리나라 이조시대만 해도 부모가 중이면 자식들도 종의 신분으로 살아갔다. 아담의 후손인 우리도 세례성사 이전에는 아담의 죄의 후손일 수밖에 없었다. 어쩌다 좋은 주인을 만나 종의 신분을 속량받을 수 있었을 때 그 때에 사무치는 기쁨이란 정말 눈물겨운 모습이였다. 우리도 사실 세례 때 그와 같은 속량의 은혜를 입는 것이다. 이제는 더 죄의 노예 신분에서 매이지 않고 가장 고귀한 하느님 가문에 입적된다. 그래서 하늘 나라의 상속까지 받게 되니 이제 더 무엇이 부럽겠는가? 이렇게 아무 자적없는 죄인이었던 내가 오직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원 은총을 입어 떳떳한 하느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기쁘고 감사로운 마음으로 내 처지를 남에게 자랑하고 권유하면서 하느님께 보답을 드리고자 한다.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보답이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다. 세례 때의 약속을 상기해보자. 마귀와 마귀의 행실과 그 모든 허례허식을 끊어버린다고 3번씩 대답한 후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과 교회와 영원한 삶을 믿는다고 3번씩 반복 고백했다. 죄의 생활을 끊어버리고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의 자녀다운 선함과 품위로 교회의 가르침을 믿고 행하는 삶인데 우리 주 예수께서 구해주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무한한 은총을 깨닫고 우리 형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빌자.

*참고 자료 : 거서 대모님 · 물과 성령(26분 VHS)

교구 소식

※우리 모두 성소후원회에 가입합니다. 오늘은 성소후원 회비를 납부하는 날입니다.

1. 교구장 사목방문 : 6월8일(화) 오전10시 노송동, 오후2시 복자, 6월11일(금) 오전10시 삼례, 오후2시 상삼례.
2. 축! 건진 : 6월13일(일) 오전10시30분 나운동 성당.
3. 천호 피정 안내 : 6월12일-13일 주제-성찬의 신비를 사는 생활, 강사-유영봉 신부, 6월15일(화) 주제-자유로운 인간, 강사-전종복 신부, 문의 73-6600.
4. 전국 평형 상임위원회 : 6월12일-13일 오후5시 나바위 피정의 집.
5. 빛드레 신앙인 학교 : 6월14일-8월9일 매주(월) 오후7시30분, 가톨릭센터 3층 강당, 대상-수도자, 평신도, 회비-일반 15,000원, 학생 10,000원.
6. 사랑의 다리 월례미사 : 6월7일(월) 오전10시30분 가톨릭센터 3층 강당.
7. 엄마들을 위한 영화 상영 : 6월21일(월) 오후3시 교구청 별관 1층 소강당, 제목-솔로몬의 딸, 회비-1,000원.

※축! 영명 : 11일(성마르나바) 박영규 신부님.

●성소모임 살트르 성바오로수녀회 : 6월13일 오후2시 창인동 성당(0653)842-4132.

자연과 인간의 평화를 위하여

생명의 물

집들이 선물로 합성세제 대신에 빨랫비누를 택합니다. 합성세제의 사용량이 늘어남에 따라 우리가 먹는 물은 자꾸만 죽어가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지은 피아노 학원

유치부, 국교부, 일반
설기 및 이론 전문 지도
이 정 순(마리아)
인후2단지 정문 앞
☎ 254-54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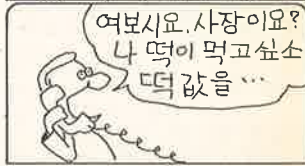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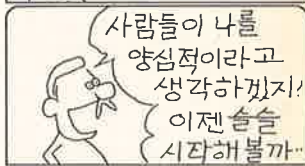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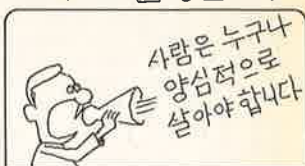
성락과학사

프라모델, 무선 조종 모형기,
광섬유 취급 전문점
* 주일학교 어린이, 교우 어른분
10% 할인
송 영 은(돈보스코)
성락프라자 150호 ☎ 254-8925

성심 목 공업사

성구·장의자·회의용 탁상
사무용 가구·침대·실내 장식
목재가구 일절
서옥봉(스테파노) 한은순(안나)
전주 럭키 우아아파트 앞
☎ 77-1747

요십이 (1032) 김병오



알려드립니다.

전주교구 사제단 사진촬영이 나왔습
니다. 필요하신 분은 교구청 사무
처(85-0041)로 연락하시면 되겠
습니다.

* 1권당 : 이만원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요한 20, 19)

함께 기뻐해주시고 축하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주님과 여러분들의
사랑받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장순례(수산나)의 아들 :
문대현 · 정현 · 규현 · 세현

진선미 꽃집

각종 생화
신부 부케 전문

미지트 원목가구

중앙동 대리점
이 명 자(마리아)
범 덕 배(디 토)
전주백화점 옆
☎ 진선미 84-2628
미지트 84-8725

☐ 남전주지구 본당소식 ☐

*** 노송동** 본당신부 82-9663 사제관 82-9663 주임신부 박진량
수녀원 82-9662 사무실 82-9661 사목회장 김동주

- ◎ 삼위일체 대축일
- 1. 첫영성체 교리: 6월8일~26일까지.
- 첫영성체-6월27일, 영성식-7월4일.
- 2. 주교님 사목방문: 8일 새벽미사(어머니미사 없음)
사목회 임원 및 제단제장님께서는 참석바랍니다.
- 3. 모임: ①꾸리아-천사의 모후(13일 장엄미사 후) 자비의 모후
(13일 후 2시) ②장우회(13일)
- 4. 노송 은혜의 밤: 6월8일 밤 11시부터 새벽 5시까지.
- 5. 금주 청소: 인후11반, 동진1반.
차주 청소: 동진2반, 남노1반.
- ☐ 지난주 봉헌금: 1,073,650원 ☐ 교무금: 1,160,000원

*** 전동** 사제관 본당 81-0098 보좌 82-7245 주임신부 김봉희
사무실 84-3222 수녀원 82-9234 보좌신부 정성만
유치원 84-8347 FAX 82-6232 사목회장이 영태

- ◎ 삼위일체 대축일.
- 1. 금주: ①청년연합회 도보 성지 순례(여산→천호) ②윤뜨레아(공식미사 후) ③제속 클라라형제회(후 1시30분) ④요셉회(후 6시)
- 2. 사목회: 8일(화) 오전 10시.
- 3. 돈·보스교회: 9일(수) 오후 7시30분.
- 4. 금주 영화상영: 9일 저녁미사 후. "이는 내 몸이요, 내 피니라"
- 5. 차주: ①자모회(진 10시)
②일치의 모후 꾸리아(후 2시)
③사목회(후 8시)
- ☐ 지난주 봉헌금: 1,702,160원

*** 복자** 사제관 86-3453 사무실 86-3455 주임신부 김병환
수녀원 86-3454 사목회장이 상인

- 1. 교구장 사목방문: 8일 오후 2시.
- 2. 회합: ①사목회(오늘 저녁미사 후) ②대건회(오늘 공식미사 후)
③구약분과회(8일 오전 10시) ④윤뜨레아(8일 저녁미사 후) ⑤
안나회(10일 오전 10시) ⑥여성분과회(12일 오전 10시) ⑦요셉
회(13일 공식미사 후) ⑧꾸리아(13일 오후 2시) ⑨청년회(13일
저녁미사 후) ⑩혜절자모임(13일 공식미사 후)
- 3. 야외용 앰프 기증(130만원): 안수산나씨 감사합니다.
- 4. 축구시합: ①장소-진주국민학교 운동장 ②일시-13일 오후 1
시 ③대상(복사단팀, 중·고학생팀)
금주 전례: 혜절-유복규, 독서-지혜용씨 부부.
봉헌-안윤정씨 가족.
차주 전례: 혜절-유두석, 독서-김현덕씨 부부
봉헌-김병화씨 가족.
- ☐ 지난주 봉헌금: 520,000원 ☐ 교무금: 1,296,900원

*** 상관** 사제관 85-6654 사무실 85-6652 주임신부 한봉섭
수녀원 85-6653 사목회장 한동욱

- ◎ 6월은 예수 성심 성월입니다.
- 1. 오늘은 삼위일체 대축일
- 2. 모임: ①꾸리아-오늘 공식미사 후.
- 3. 오늘은 교무금 납부의 날: 정성껏 봉헌합시다.
- 4. 성소후원회: 희비 납부하세요(매일 첫주)
- 5. 신자의 의무인 주일미사를 권하지 않습니다.
- 6. 차주 전례: 혜절-박영미, 독서①강덕용 ②주영례
봉헌-이수복 씨 부부
- ☐ 지난주 봉헌금: 521,800원(143,550원)
- ☐ 교무금: 191,500원

*** 서학동** 사제관 84-8307 사무실 86-4929 주임신부 이종원
수녀원 84-2276 사목회장 김영웅

- ◎ 오늘은 삼위일체 대축일! 6월은 예수 성심 성월!
- 1. 반경회: 오늘(6월6일) 공식미사 후.
- 2. 꾸리아: 6월6일(오늘) 오후 2시.
- 3. 제속프람치스고 3회: 6월13일(다음주일) 오후 2시.
- 4. 첫영성체: 6월12일(토)
- 5. 성소후원회에 다함께 가입합시다.
- 6. 전년도 교무금 미납자 완납바람.

*** 용머리** 사제관 88-3872 사무실 87-0441 주임신부 현유복
수녀원 81-0441 사목회장 오직환

- ◎ 삼위일체 대축일
- 1. 오늘 공식미사 후: 꾸리아.
- 2. 오늘 주일학교 소풍: 완산칠봉(8:30~5:40)
- 3. 가정방문: 6월9일~10일(수, 목)
- 4. 청소봉사: 5구역 3반, 4반.
- ☐ 지난주 봉헌금: 680,400원 ☐ 교무금: 988,000원

*** 평화동** 사제관 85-6979 사무실 83-8245 주임신부 이재후
FAX 82-6686 수녀원 87-0229 사목회장 감상근

- ◎ 특별강론 공식미사 범석규 신부님
- 1. 세례 대상자 집중교리: 7일~11일 매일 저녁 7시30분.
- 2. 예비자 면접: 8일 전 10시~12시, 후 7시~10시.
중고생: 오늘 공식미사 후 대부모를 동반해주시기 바람.
- 3. 세례식: 12일 후 5시30분. 축하드립니다.
- 4. 성탄반 예비자 모집: 20일까지 1인1도 복음을 전합시다.
- 5. 사목회 상임위원회: 10일 후 8시 박중수 총무택 영창1-406
- 6. 회의: 꾸리아-오늘 후 2시30분. 한빛회-오늘 공식미사 후.
자모회-9일 어머니미사 후. 제대회-11일 후 3시.
- 7. 솟개떡 판매 이익금: 서울-2,560,000원. 본당-1,400,000원.
부녀회원과 수고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 지난주 봉헌금: 1,273,080원 ☐ 교무금: 2,120,000원

*** 화산동** 사제관 221-9843 주임신부 서석구
사무실 221-9842 사목회장 한병갑

- 1. 사목회: 오늘 오후 8시.
- 2. 반모임: 8일(화) 오전-화산2(B) 오후-평화, 저녁-삼정2.
9일(수) 오전-금학, 오후-화산2(A) 비사일.
- 10일(목) 오전-오성은하1, 오후-오성은하2.
- 3. 대건회: 10일(목) 오후 8시.
- 4. 성모회, 자모회: 다음주일 미사 후.
- 5. 수녀원, 회합실, 에어컨을 위한 모금 및 납부에 협조를 바랍니다.
금주 전례: 정운성, 독서·봉헌-정영모, 이종택
차주 전례: 강희연, 독서·봉헌-정현정, 김의식

*** 효자동** 본당 223-3824 사무실 223-3821 주임신부 김치삼
보좌 223-3823 수녀원 223-3822 보좌신부 장상호
FAX 223-3821 사목회장이 동섭

- ◎ 오늘은 삼위일체 대축일입니다.
- 1. 요셉, 안나회: 오늘 공식미사 후에 있습니다.
- 2. 레지오 단원 교육: 6월11일(금) 오후 7시30분.
- 3. 첫영성체: 6월12일(토) 오후 3시 어린이미사 중에.
- 4. 유기농장: 10평1구좌에 심관원입니다. 생태인 농막 공소에서
유기농법으로 죽어있는 먹거리에서 생명의 먹거리를 재공합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사무실에 접수하십시오).
- 5. 효자월보 원고를 모집합니다. 문학적이 아니더라도 좋습니다.
우리들의 생활속에서 기억하고 싶은 신앙적, 일반적 모든것을
원합니다.
미사안내: 금주-순교자, 파티마의 모후, 차주-자비의모후,
성마리아.
- ☐ 지난주 봉헌금: 1,214,510원 ☐ 교무금: 1,894,500원

*** 효자우전** 사제관 221-3712 사무실 221-3711 주임신부 김순태
수녀원 223-0715 사목회장 엄익도

- 1. 모임 안내: 11일(금) 10시 미사 후, 자모, 성모, 성심회.
- 2. 바자회에 수고하는 전신자분에게 감사드립니다.
- 3. 어린이 영성식: 12일(토) 오후 3시, 첫영성체 오후 4시.
영성 및 첫영성체 부모님은 참석바랍니다.
차주 모임: 꾸리아, 빈센시오회, 제대회.
신축현금 봉헌액: 100,000원
금주 전례: 혜절-이인숙.
독서-①남상용 ②최윤희
봉헌 안내-조용거 부부, 김용현 부부
- ☐ 지난주 봉헌금: 1,348,230원 ☐ 교무금: 1,501,000원